축산농가 · 축산계열화업체에 경영자금 4천7백억원 추가지원

농림부는 최근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불안정에 따라 사료가격이 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축산경영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업체 등 축산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경영자금을 '97년보다 2천억원 증액 지원하고 농기업경영자금에서도 1천억원을 축산농가에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가축의 생산·가공·판매를 담당하는 계열화업체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신규로 5백7십억원을 확보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는 한편, 시·도에서도 자체자금으로 설치한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1천1백5십3억원을 축산농가 경영안정 부문에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이같은 추가지원 배경과 주요골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경영자금 지원규모 2천억원 증액 및 농기업경영자금 1천억 축산농가 신규지원

△농림부는 사료가격상승과 외상거래축소, 금리인상 등으로 양축농가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 전년 5천2백억원이었던 축산경영자금을 '98년에는 2천억원이 늘어난 7천2백억원으로 확충키로 하였음.

△이같은 조치는 축산농가들이 원가상승과 가격불안정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시설이나 기반확충사업보다는 기존 경영체의 경영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취한 조치임.

△농림부는 2천억원중 이미 예산에 반영된 1천억원은 최대한 조기에 지원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생산기반조성 등의 다른 부문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키로 함.

△이와함께, 경종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농기업경영자금중 1천억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축산단지, 전업농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가축의 생산·가공·유통의 축산계열화업체 지원

△농림부는 사료가격 인상과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및 금리인상, 시설설치비 환차손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일시적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계열화업체들에게 긴급경영자금 5백7십억원을 1월중에 특별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같은 조치는 계열업체가 도산할 경우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축산물가공·유통시장의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지원키로한 것임.

△지원대상은 그동안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중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축의 생산·가공·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업주체(양계·양돈이 주종)로서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금리부담이 높은 자금의 대체소요자금 지원도 가능토록 하여 실질적인 경감효과를 도모하였음.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조건은 금리 8.0%, 대출기간은 1년 이내임

지방비 1,1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

한편, 시·도에서도 자체자금으로 설치한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총 1,1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키로 결정 지원중임.

△경기도 : 축산단지 운영비 24억원

△경남도 : 수출양돈농가 사료비 및 축산단지 운영비 61억원

△경북도 : 양축농가 사료구입비, 소독약등 116억원

△전남도 : 양축농가 사료대 67억원

△전북도 : 양축농가 사료대 207억원

△충북도 : 수출양축농가 경영자금 25억원

△충남도 : 양축농가 경영자금 등 639억원

△울산시 : 양축농가 경영자금 14억원

농림부는 다른 도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례가 파급되어 지방비 등을 활용한 양축농가 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조치사항

농림부는 지난해말 배합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관련정책자금의 원리금 1천5십1억원의 상환을 1/4분기중 유보토록 조치하고 산지 돼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축산 발전기금에서 676억원을 수출육가공업체, 축산물종합처리장에 지원중에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현금구매에 따른 부족자금을 단위농협 및 축협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무제한 특별 대출토록 조치한 바 있음.

지원조치의 효과

그동안의 지원에 힘입어 최근 가축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지 돼지가격은 12월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97.12. 하) 131천원/100kg → ('98.1.12) 155천원] 산지소값도 안정세(500kg 수소 220만원내외)를 회복하고 있음.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로 지난해말 이래 6천4백5십억원 이상의 자금이 축산부문에 지원되게 되었음.

특히 금번의 추가지원조치로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축산경영체의 경영압박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고 안정을 되찾아갈 것으로 기대됨.

농업경영체 지원방식 대폭 변경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방식이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농정개혁방향 설정과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나, 농림부가 농정발전기획단을 통해 제출한 개선안, 농개위가 마련하고 있는 21세기 농업개혁방향 모두 기본 경영체 육성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업농·후계자 육성과 영농조합법인 육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경영체지원자금과 각종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도 합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따라 소요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조보다는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법인체)의 경영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대체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농정발전기획단은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각종 생산·유통지원자금, 후계자·전업농 육성자금 등 전문경영체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전문경영체의 경영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과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경영컨설팅기구의 지도와 심사를 거친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개위에서도 개별농가와 법인조직체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혼란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IMF를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가족농을 육성해야 하며, 사업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경영주체의 수준과 여건에 맞춰 지원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농개위의 검토의견이라는 것이다.

한편 인수위원회에서도 종합자금지원제 등 투융자방식의 개선을 포함해 구조조정의 촉진, 물류혁신대책, 농업농촌기본법제정, 농림부 등 조직개편 등을 신정부가 추진해야할 1백대 과제중 농업분야 과제로 선정,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농수축산신문 : 98/1/19〉

농가 교역조건 5년만에 '최저'

환율폭등으로 인한 농업용품의 가격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이 5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중 농가교역조건은 93.3으로 전월대비 3.3포인트, 96년 12월에 비해서는 무려 8.5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연도인 90년 이후 연도말 기준으로 92년 12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악화는 한우, 송아지 등의 축산물 가격이 폭락, 연초부터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돼온데다 12월중 곡물과 청과물 가격도 내려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월대비 1.7% 하락한 반면 환율 폭등으로 인해 석유, 경유, 위발유(면세유) 등의 영농광열비와 사료가격이 전월대비 67.6%, 34.7%씩 폭등,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8%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가교역조건은 농가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농가 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눈 값으로 이것이 100을 넘으면 농가경제에 유리하고, 100미만이면 불리한 것을 의미한다.

농협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가구 소득감소에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농업용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농가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 업 안 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으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취급종목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통** (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 (신·구형)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희 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 (0596) 73-7366

벌 꿀 수 매

그동안 (구)유달양봉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양봉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고향전통식품은
13년간 양봉산물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양봉가 여러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벌꿀을 **현금수매**할 계획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바랍니다.

벌꿀 현금수매 ☎ (0342) 716-5000~1

(구)유달양봉

내고향전통식품 대표 황 성 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98 - 6

약도 : 판교IC에서 수원간 국도 4.5㎞ 지점